中조선족소학교에도움의손길을

최근건설업계에서는사회 공헌활동이커다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사회 환원과이미지개선이란점에서크게 환영할만한일이다.
이런즈음에우리 건설인들이좀더 시야를 넓혀해외의동포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한다.
조선족아이들이다니는학교가더이상폐교되지않도록지켜내는데전국의모든건설인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기를기대해본다.

손광섭
광진건설회장 · 청주건설박물관장

후손들에게 민족의 얼과 정신을 가르쳐 이를 이어나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학교는 민족의 영토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유태인 학자 벤 자카이의 혜안이 이를 잘보여준다. 이스라엘의예루살렘이로마에점령되어곧 파괴될것임을 예견한그는황제가될 로마장군에게" 한 칸의 교실이라도 좋으니 조그만 학교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그리고그것만은없애지말아주십시오"라고애원하였다. 이학교를시작으로유태인은세계곳곳에서경제 · 정치 · 문화등다방면에걸쳐세계를이끄는지도자를배출해냈다.

중국흑룡강성영안시는조선족자치향이다. 이지역은고구려를 계승한발해의문화유적이고스란히담긴곳이며, 김좌진장군이살던집이남아있는곳이다. 즉, 우리민족의얼과자존심이살아있는 역사의장인것이다.

그런데얼마전알고있는중국교포로부터안타까운소식을접하게되었다. 조선족인구가감소해조선족공동체가붕괴되고있으며, 어린학생들이원거리통학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이었다. 더욱이학생수감소로통폐합되는학교가늘어남에따라통학거리가 늘어날수밖에없고, 이로인해새싹들이학업을포기하는사례마저 속출한다는딱한사실도듣게되었다.

모른체할수가없었다. 그래서지난5월중순직접영안시를찾아갔다. 말 그대로였다. 영안시에는한때 34개의 소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10개도채되지않는학교에서우리의역사와문화를전하고 있었다. 영안시조선족 소학교 윤길호 교장선생님은" 부모들이 한국이나 외국으로 취업이나 돈벌이를 나가는 바람에 대부분의 아이들은조부모에게맡겨져생활하기때문에거리가멀어학교를다니지 못하거나 인근 도시의 학교로 떠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보였다. 남아있는학생들도교통편이좋지않아보통2시간이상을 걸어등교를 해야 해가까운 한족 학교로전학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조선족 학교들의 와해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나마 남아있는아이들마저어쩔수없이한족학교로가게되면 어떨지 상상해보았다. 우리글과말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그들은뿌리를잊고중국사람으로살아가게될것이다. 그렇지않아도동북공정에따라고구려사와함께발해사가중국사의일부분으로바뀌지고있는상황에서민족의후손들마저급속히한족으로동화되어야하는안타까움에가슴이저미었다.

이대로있어서는안된다는생각이들었다. 윤길호교장선생님등을비롯하여교직원들과얘기를나누면서우선가장필요한것이학교기숙사임을알게되었다. 동포아이들에게교육을시키기위해서는학교에서공부하고생활할수있는기숙사시설이급선무였기때문이다. 조선족소학교는정부에서재정지원을받지만 향정부도궁핍한재정에시달리기때문에기숙사건립은조선족소학교로서는엄두도내지못하는실정이다.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는 조선족 공동체의 붕괴를 늦추기 위해서는조선족학교가그중심에서버티고있어야그나마남은사람들이 학교를중심으로우리의민족혼을지킬수있다. 그러자면조선족학교와한국학교내지는기업및지방자치단체를자매결연으로연결하여동포들의민족교육을지원하는프로젝트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기숙사건립추진은이러한사업들을위한물꼬라고할수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사회 공헌 활동이 커다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사회환원과이미지개선이란점에서크게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런즈음에우리건설인들이좀더시야를넓혀해외의동포 아이들에게도움의손길을내밀었으면한다. 조선족아이들이다니는학교가더이상폐교되지않도록지켜내는데전국의모든건설인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기를기대해본다.